

## DJ센터 제2전시장 부지 상무골프연습장 유력

광주시, 도시공사에 검토 요청  
1주차장 부지 '너무 협소' 판단  
도시공사, 수익사업 피해 난색

광주시가 추진중인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부지가 상무골프연습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광주시가 상무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도시공사측에 제2전시장 건립부지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당초 건립부지로 유력했던 현 김대중컨벤션센터 건너편의 제1주차장(1만8천932㎡) 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1만1천㎡ 규모의 제2전시장을 건립하기에는 협소해 전면 재검토

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부지로 상무골프연습장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 담당부서는 이같은 방안을 놓고 지난 27일 도시공사 관계자와 실무협의를 했다. 광주시가 제2전시장 부지로 검토를 요청한 상무골프연습장(3만4천647㎡)은 부지 활용도가 높은 상무지구 중심에 자

리하고 있고, 김대중컨벤션센터 1전시장과도 도보로 5분 이내 거리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상무골프연습장과 5·18자유공원 일부를 묶어 2전시장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5·18사적지 훼손 문제 제기 등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해 현재로서는 상무골프연습장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남은 상태다. 그러나 상무골프연습장은 부지를 포함해 도시공사의 자체 시설로, 공사가 운

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수익 시설이어서 광주시의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무골프연습장은 상무지구 한복판에 위치해 연습장 등록인원만 10만여명으로 추산돼 이용객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도시공사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데다 연습장 이용객들을 위한 대안이 없는 이상 부지전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5년간 김대중컨벤션센터의 평균 가동률이 70%에 달하는 등 전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제2전시장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자유공원 일부를 이용하는 방안은 5월 단체와 협의를 거친 결과 영창 등 5·18사적지 훼손문제로 사용이 어렵게 됐다"며 "제1주차장 부지도 전시장 규모에 비해 너무 협소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국비(500억원)과 시비(500억원) 등 1천억원을 투입해 제2전시장 건립을 추진중이다. 광주시는 전시장(1만1천㎡ 규모)과 컨벤션(5천㎡), 회의실(1천500㎡), 업무시설(2천880㎡) 등을 갖춰 국제회의복합지구로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부지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확정해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받는 등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다이지자



**집중호우 대비 훈련**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여름철 자연재난(홍수·대비) 현장대응훈련이 28일 오전 광주남구 백운동 옛 보훈병원 일대에서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경찰청, 소방서, 자율방재단 등 10개 기관 합동으로 실시됐다. 이날 관계자들이 집중호우로 인한 백운광장 일대 침수상황을 가정해 양수기·수중모터, 포켓뱀을 동원, 물을 퍼내는 훈련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전남 어촌계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의 어가 수와 어가 인구가 10년 만에 각각 20% 안팎 줄어든 반면, 고령화로 70대 이상 경영주 어가 수는 50% 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2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10년간(2009년~2018년) 전남지역 바다의 변화상에 따르면 지난해 어가 수는 1만8천506가구로 2009년과 비교해 3천675가구(-16.6%) 감소했다. 지난해 어가 인구는 4만2천584명으로, 2009년과 비교해 1만6천259명(-27.6%) 줄었다. 특히 전남 어촌계에도 1인 가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 전남 어촌, 청년 찾아보기 힘들다

고령화 여파로 70대 이상 경영주 56% 증가  
어업종사 가구·인구 10년 만에 20% 안팎 ↓

지난해 전남도 가수원수별 어가 수를 보면 1~2인 가구는 72.5%, 3인 이상 가구는 27.5% 차지했다. 2009년 대비 1인 가구는 1천562가구(99.5%) 증가했으나, 2인 이상 가구는 5천237가구(-25.4%)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70대 이상 경영주 어가수는 5천272가구로 2009년과 비교해 1천907가구(56.7%) 늘었다. 2009

년 대비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지만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증가세를 보였다. 전남도의 어가 경영주는 60대가 31.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70대 이상이 28.5%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10년전과 비교한 어로어업과 양식어업 어가수는 각 1만563가구, 7천943가구로 2천14가구(-16.0

%), 1천289가구(-14.0%) 줄었다. 지난해 어업생산량은 184만2천t으로 2009년 대비 85만7천t(87.0%) 증가했다. 일반해면 어업 생산량은 1만6천t(-9.6%) 감소했지만, 천해 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87만1천t(108.2%)과 1천948t(30.8%) 증가했다. 일반해면 어업의 주요종업인 멸치(-8.0%), 참조기(-30.4%), 젓새우류(-0.4%)는 생산량이 줄었고, 천해 양식어업 주요종업인 갈류(256.9%), 다시마류(85.6%)는 늘었다. 어업 생산금액은 2조8천670억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1조2천850억원(81.2%) 증가했다. /임후성 기자

## ‘혁신도시 발전기금’ 이전

나주시 “공동육영 추진 그 결과 따르자” 제안  
광주시 “원점서 재검토 하자는 것…수용 불가”

빛가람혁신도시의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놓고 광주시와 나주시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가 ‘공동 육영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내놓아 광주시와의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나주시는 전문기관이 혁신도시 성과를 분석하는 공동 육영을 추진해 그 결과에 따라 기금 조성 시기, 금액의 규모, 사용처 등을 결정하자는 안을 광주시에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나주시는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2020년부터 복합혁신센터, 빛가람 페스티벌, 발전재단 등 혁신도시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0억원을 우선 출연할 계획도 내놓았다. 나주시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광주시가 혁신도시 조성 이후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전액을 기금으로 조성해 성과 공유에 사용하자는 기존 주장에서 한발 물러서 지방세로 50%를 조성한 뒤 매년 10%씩 증액하는 양보안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나주시는 그동안 이전 공공기관을 포

함해 혁신도시에서 징수한 지방세가 총 1천101억원인데 비해 지출은 1천962억원으로 재정 적자가 계속돼 지방세 전체를 기금으로 조성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광주시는 2005년 나주시의 ‘혁신도시 유치 제안서’와 2006년 ‘혁신도시 성과 공유 협약’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전부를 즉시 기금으로 조성해 인근 자치단체에 혁신도시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공동발전기금 문제가 풀리지 않자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새로운 양보안을 나주시에 제안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나주시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받아줄 수 없는 안”이라고 밝혀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나주시의 공동 육영 추진 제안은 발전기금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이어서 받아들 수 없다”며 “전남도와 나주시를 상대로 지속해서 협의를 벌여 절충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지자 /나주=김영수 기자

**호남 최초 스마트폰 방송국 광주매일 TV**

5·18 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을 위한 ‘광주시민 5·18 시 낭송회’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환교인 자유한국당 대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강행

m.kjdaily.tv m.kjdaily.com PC·스마트폰·유튜브·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고·사정문의 062)650-2024

**제18회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The 18<sup>th</sup> FINA World Championships Gwangju 2019

**DIVE INTO PEACE**  
평화의 물결 속으로

**선수권대회 2019.7.12. ~ 7.28. (17일간)**  
**마스터즈대회 2019.8.5. ~ 8.18. (14일간)**

Official FINA Partners: Nikon, Yakult, arena, Myrtha Pools, 农夫山泉, OMEGA, SAMSUNG, kt, 광주은행, 흥국생명, ASIANA AIRLINES, 서울신민, JOURNEY, Malleson, Mikasa, PLANEW,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National Suppliers: (주)세명여행, 티벳링크, 제일 여행서비스, 동영산업